

리퍼트 美대사 '5·18 문서' 89건 전달... 진상규명 새 국면

1980년 5월 2일~12월 23일
신군부 작성해 넘긴 문서 중심
희생자 숫자·DJ 재판 동향 등
미국 대사관 본국 보고 내용
5·18재단, 내용 정밀분석 나서

주한 미국 대사관 측이 5·18 민주화쟁
과 관련된 미 정부 기밀해제 문서들을 5·
18 기념재단에 제공하면서 80년 5월을 돌
려싼 진실 규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
관심이 쏠린다.
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18일 광주
시 서구 치평동 5·18 기념재단을 방문해
대사관 측이 지난 1980년 광주민주화 운
동 당시 작성, 본국에 보고한 5·18 관련 문
서 89건을 차명석 재단이사장에게 전달했
다. (인터뷰 5면)
리퍼트 대사는 이날 광주일보와 단독 인
터뷰에서 “현재까지 기밀해제된 문서를
최대한 확보해서 전달했다. 앞으로도 관련
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”이라고
밝혔다.

5·18 기념재단은 영문으로 작성된 해당
문건을 번역하는 등 정밀 분석에 나섰다.
재단이 입수한 문건은 미 대사관 측이
5·18 민주화쟁과 관련해 수집한 정보와
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작성해 넘긴 문
서 등을 바탕으로 작성됐다. 당시 본국에
보고했거나 대사관에 자체 보관 중이었던
것으로 전해진다. 미 대사관 측이 문서를
작성한 시기는 지난 1980년 5월 2일부터
같은 해 12월 23일까지다.
특히 이들 문서에는 미 대사관 측이 파
악한 5·18 관련 희생자 숫자, 김대중 전 대
통령 재판 동향, 1980년 5월을 전후로 한
국내 정치 및 사회 동향 등이 담긴 것으로
전해졌다.
5·18 재단 측은 “미 대사관측이 제공한



5·18 기념공원의 美 대사 마크 리퍼트(왼쪽) 주한 미국대사가 18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5·18 기념공원을 방문해 김양래 5·18기념재단 상임이사장과 함께 '추모송화 공간'을 둘러보고 있다. /최현배기자 choi@kwangju.co.kr

문서 89건 가운데 일부는 목록으로 보아
재단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문서와 중복
될 수도 있어 보인다”는 설명이지만, 문서
검토 과정에서 그동안 베일에 싸여있던
5·18 관련 의혹을 풀어줄 단서로 작용할
가능성도 있다.
5·18 항쟁 37주년을 맞는 현재까지도
5·18 당시 계엄군에 의해 사망한 광주전
남 시민들의 수는 명확하지 않다. 정부, 광
주시, 5월 단체 측 주장이 엇갈리는데다,
5·18을 전후로 행방불명된 숫자도 적지
않기 때문이다.

김양래 5·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리퍼
트 대사에 “미국에 돌아가면 개인 신분
이지만 미국 정부가 5·18 기록물을 공개
하도록 계속 도와달라”고 요청하며 서한
을 전달했다.
임기를 마치고 오는 20일 미국으로 출국
하는 리퍼트 대사는 이날 KTX편으로 광
주에 내려와 광주시 서구 5·18기념공원을
돌아봤다. 오후에는 5·18 민주화쟁 관련
자 등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를 위한 광주
트라우마센터로 발걸음을 옮겼다가 기아
타이거즈가 후원하는 발달장애청소년 아

구단 ‘이스트 타이거즈’ 소속 청소년 20여
명과 만나 30여 분간 피칭, 배팅 연습을 함
께한 뒤 서울로 돌아갔다.
정동은 광주시 국제관계대사는 윤장현
광주시장을 대신해 리퍼트 대사에 기아
타이거즈 유니폼과 찻상 덮개, 광주 방문
사진 등을 선물하기도 했다. 광주시는 아
구팬인 리퍼트 대사를 위해 지난 2년 6개
월여 동안 한국에서 근무한 인연을 담아
등번호 ‘26’이 새겨진 연고 팀 야구 유니폼
을 준비했다.
/김형호기자 khh@kwangju.co.kr

대선주자 文·潘·安 일자리 창출 공약 경쟁

문제인, 노동시간 단축 131만개
반기문, 청년 전담기구 설치해야
안철수, 호남 4차 산업혁명 거점

일자리 창출 문제가 조기 대선에 화두
로 부상하고 있다.
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8일
공공부문 총원고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
13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
밝혔다.
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
싱크탱크 ‘정책공간 국민성장’ 주최 정
책포럼 기조연설에서 “일자리 문제 해
결을 위해 비상경제 조치 수준의 특단의
대책이 필요하다”며 이 같은 내용을 골
자로 한 일자리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.
그는 “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공공부
문 고용 3%포인트만 올려도 일자리 81
만개를 만들 수 있다”고 강조한 뒤, “노
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50만개를 창출
하겠다”고 말했다.

문 전 대표는 구체적으로 소방관·경
찰·교사·복지공무원·부서관 등의 증원
을 거론했다. 그는 “인구 1000명당 12명
인 사회복지공무원을 OECD 평균의 절
반 수준으로 하면 25만 명을 늘릴 수 있
고, 소방인력도 1만7000명 가까이 부족
하다”고 지적했다.
또 “병역자원 부족을 해소하고 민생
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을 폐지
하고 연간 선발규모 1만6700명을 대체
하는 정규경찰을 신규 총원하겠다”고
밝혔다.
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이날 조선
대학교 강연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

해 “최고의 우선순위를 뒤야 한다”고 강
조하며 “정부에 청년 전담 기구를 설치
해야 한다”는 견해를 밝혔다.
반 전 총장은 이어 “학생들이 ‘공부해
봤자 무슨 소용이냐’며 포기하는 현상이
있다”며 “이런 것을 저는 절대 용납할 수
없다. 정부와 정치 지도자들이 여기에 대
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”고 주장했다.
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대표도 이날
전북을 방문, 일자리 창출 행보에 나섰
다. 안 전 대표는 이날 한국탄소융합기
술원을 방문, 탄소산업클러스터 사업은
신소재 산업으로 제4차 산업혁명에 대
비한 거점 개발과 일자리 창출에 큰 역
할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.
이어 안 전 대표는 전주 모래내시장에
서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민생 경제의
어려움을 들은 뒤, 저녁에는 청년 당원
들과 ‘막걸리 토크’를 통해 청년 일자리
문제와 청년 정책 구상 등에 대한 의견
을 나눴다.
/임동욱기자 tuim@kwangju.co.kr

5·18 기념재단
“올해는 발로명령자 규명한다” ▶6면



그림편지 - 강남구의 필리핀 ▶18면



최형우 “3할·30홈런·100타점” ▶20면

대선 앞두고 지방분권 요구 거세다

시·도지사협의회 등 결의대회
자치조직원 등 보장 개헌 촉구

조기대선 국면과 함께 개헌 논의가 본격
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
분권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

있다.
‘지방주권개헌국민행동’과 ‘대한민국
시·도지사협의회’, ‘전국시장·군수·구청
장협의회’ 등은 18일 국회도서관에서 지
방분권 개헌 국회 결의대회를 열었다.
이날 행사에는 안희정 충남지사와 김관
용 경북지사, 박주선 국회부의장, 더불어

민주당 김부겸 의원 등이 참석해 지방분권
형 개헌을 강조했다. 또 전국민적 공감대
를 이끌어내기 위해 한목소리를 내는 한
편, 정치권에 ‘지방분권’을 명문화한 개헌
을 촉구하자는 의견도 모았다.
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“국회 개헌특위
는 통치구조 개편과 대통령에 집중된 권

력의 분산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선진
형 분권구조를 헌법에서 보장하는 지방
분권 개헌을 적극 추진하라”며 “지방분
권 이념과 지자체 종류를 헌법에 명문화
하고 자치조직원, 자주입법권, 자주재정
권 보장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”고 밝혔
다.
이들은 허을 좋은 ‘지방자치 2할 시대’
를 하루빨리 끝내는 것만이 온전한 선진
국형 지방자치를 뿌리내리는 출발선상으
로 보고 있다.
/이종형기자 golee@kwangju.co.kr



생각한다. 반응한다.
지능적으로

The New E-Class. Masterpiece of Intelligence



Mercedes-Benz



신성자동차

신성자동차(주) 광주 전시장
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 (화정동) / Tel. 062)226-0001

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
E 300 (배기량: 1,991cc, 공차중량: 1,740kg, 자동9단) 복합연비: 10.8km/ℓ (도시연비: 9.6km/ℓ 고속도로연비: 12.6km/ℓ), 등급: 4등급, 복합CO₂ 배출량: 161g/km E 300 4MATIC (배기량: 1,991cc, 공차중량: 1,790kg, 자동9단), 복합연비: 10.3km/ℓ (도시연비: 9.3km/ℓ, 고속도로연비: 12km/ℓ), 등급: 4등급, 복합CO₂ 배출량: 169g/km
※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, 운전 방법,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
※ 상기 제품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